

구윤철 부총리,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협력 방향을 논의

- 한미 양국 간 경제분야 협력 진전을 통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 기대 -
-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현안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들을 상당 부분 진전 -
-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과의 네트워크 고도화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②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③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농림부·산업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구 부총리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3,500억불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지난 7.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으며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들을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①경제안보 소통 강화, ②수소·AI 등 미래산업 협력, ③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우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3위 시장 규모를 가진 아세안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 [붙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총 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배병관 박영우	044-215-7610 paxkoreana@korea.kr
-------	------------------	------------	------------	------------	-------------------------------------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관련]

안건	담당자	연락처
①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산업부 미주통상과	안홍상 과 장 정지선 서기관 044-203-5650 jisunjeong@korea.kr
②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박지은 과 장 임윤빈 사무관 02-2100-7675 yblim24@mofa.go.kr
③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 FTA이행과	김도엽 과 장 이선주 사무관 044-203-5750 snjlee@korea.kr
	산업부 FTA협상총괄과	손호영 과 장 이시몬 사무관 모덕춘 사무관 044-203-5830 simona11@korea.kr chun77@korea.kr